



時 計 塔

SIGETOP



2005년 10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2권 4호

142-04 Bayside Avenue, 10U A, Flushing, NY 11354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崔準熙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宋寬鎬

2005 ANNUAL BALL

2005년도를 마감하면서 동문 여러분들을 연례만찬에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한해를 돌아보며 희망에 찬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05년 11월 19일(토) 오후 6시30분

장소: Palisadium Daewon Manor
700 Palisadium Drive, Cliffside Park, NJ

Membership Fee
\$125 per person

6:30pm - Reception & Cocktail
7:30pm - Main Ball

회장 100 DAYS REPORT

회장 최준희(64)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그리고 가족 분들 안녕하십니까?

3개월 전 취임사에서 인사를 올린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 회장단이 출범한지도 약 10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관습에 따르면 얘기가 태어나면 돌잔치 전에 의례히 100일 잔치를 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되었기에 저는 지난 100일 동안 회장단과 더불어 일 해온 것들과 계획을 보고드리려 합니다.

1. 오는 11월 19일에 거행될 Annual Ball(Palisadium, Cliffside Park, New Jersey)의 계획을 완료하고 Invitation Card를 우송하였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특히 졸업 50주년을 축하드릴 계획으로 1955년 Class의 많은 참석을 요망하는 편지를 Class 대표에게 발송했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

2. Green Project Committee에서 선정한 5 young alumni에게 각 \$2,000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재정적인 협조를 해 주었음.

3. Hurricane Katrina Disaster Donation \$2,000 을 Red Cross of America로 송금했음. \$2,000 중 \$1,000은 합춘회에서 Donation 했음.

4. 내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될 Summer Convention 장소, Taj Mahal Hotel 및 근방을 답사 한 후 Convention Chairman 권정덕(64) 동문의 지휘하에 Contract를 완료하고 Detail Plan을 단계적으로 착수했음. 골프코스를 답사한 후 Blue Herron Pine과 Harbor Pine 골프장으로 결정했음.

5. 회장단과 적절한 Committee Chairman의 Monthly Meeting 긴밀한 communication 과 Continuity of Business 를 위하여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Meeting 을 함.

6. 본인이 개별적으로 각 Chapter President와 전화통화를 하여 Chapter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대한의 협조와 긴밀한 연락을 요청함.

7. 조만간 Past Presidents와 Class 대표들과 전화통화 혹은 e-mail로 연락하여 동창회의 장래를 의논할 계획임.

8. 오는 Summer Scientific Conference 에는 Chairperson 최영자(66)동문의 지휘하에 젊은 세대와 2세의 Speaker들도 Recruit 할 계획임.

9. 본국 서울의대 동창회 회장 하권익(63) 동문과 전화 통화하여 긴밀한 연락과 상호 부조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약속하였음.

10. New Directory - 2001년에 Directory 가 발간 된 후에 많은 동문의 이동, 은퇴 등등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E-Mail 를 Update 할 필요가 절실했음. 지난 9월3일에 있었던 제1차 이사회에서 새 Directory 의 출간을 결정했음.

11. Fund Raising Campaign
주재욱 Committee Chairman의 지휘하에 Fund Raising Campaign이 시작되었음. 새 Directory 발간, Annual Ball, Summer Convention, Green Project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함.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한 것 이외에도 여러 동문들의 충고와 Suggestions을 기꺼이 받아 들이겠으니 본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MAINDER

Speaker's for the 2006 Scientific Convention

Dear Colleagues:

On behalf of the Scientific and Education Committee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SNUCMAA) of North America, I would like to welcome all members to our 23rd Annual Convention to be held at The Taj Mahal Hotel in Atlantic City, New Jersey from June 25th to June 29th, 2006.

This year we are extremely interested in inviting not only our alumni members but also our sons and daughters, who will share their expertise and demonstrate contribution in medicine to the US. This will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to enhance relationships among our colleagues and our younger generation.

The scientific and education meeting is design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and insight into major developments in basic and clinical medicine across a broad spectrum of topics. The sessions are organized as formal lectures and presentations on various selected topics. All

the selected presenters will have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ir fields and outstanding academic and professional credentials.

Non-CME session will encompass educational topics of common interest to members and their families.

I believe that the 2006 SNUCMAA convention will be an exciting and stimulating educational experience for all the attendees. Please inform me of your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convention's scientific and education meeting via email at young.choi@yale.edu or by contacting SNUCMAA office at (718) 888-2622 by October 31, 2005.

Sincerely yours,

Young Ja Choi, M.D.
Chair, Scientific Committee, SNUCMAA of North America

2005~2006 제1차 이사회 초록



뒷줄 좌로부터 서인석(73) 최영자(66) 오영호(72) 추재욱(63) 조동준(64) 김홍서(69) 강현석(00) 이상무(62) 김병석(59) 최순채(66) 앞줄 좌로부터 송관호(64) 오태희(64) 최준희(64) 노용면(55) 이만택(58)

일시: 2005년 9월 3일(토) 6:30pm
 장소: Palisadium
 Cliffside Park, New Jersey

참석자:
 노용면(55) 이만택(58) 김병석(59) 이상무(62) 추재욱(63) 송관호(64) 조동준(64) 오태희(64) 최준희(64) 최순채(66) 최영자(66) 김홍서(69) 오영호(72) 서인석(73) 강현석(00) 이상 15명

Proxy:
 신상균(58) 이운순(58) 서영석(61) 이재승(61) 이희경(61) 조명호(62) 조한원(63) 권정덕(64) 민경탁(65) 이한중(65) 채무원(65) 이명희(66) 이종현(66) 이민우(67) 엄규동(69) 노재홍(71) 오동환(71) 문대욱(73) 심인보(83) 이상 19명

Guest : 백승석

1. 최준희 회장, 서인석 총무의 성원 보고 (총 49명 중 15명 참석, 19명 proxy)를 받고 오후 6시45분 개회를 선언함.
2. 2004-2005년 제 1차 이사회 (10월 2일)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 제청으로 통과됨. 송관호 이사께서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갖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함.
3. 회장 보고 (최준희 회장)
 - 참가한 모든 이사 분들과,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조동준 차기 회장, 김홍서 이사, 피츠버그에서 온 강현석 회원에게 감사를 드림.
 - 11월 19일 The Palisadium에서 있을 Annual Ball에 많은 참석을 요청함.
 - 지난 몇 주 동안 17개 지부중 16개 지부 회장과 직접 통화함. 대부분의 지부 회장들께서 모든 동창회 행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약속함. 아울러 e-mail address를 확보, 앞으로의 연락은 e-mail을 중점적으로 이용할 예정임을 강조함.
 - 지난 6월 14일 작고하신 이진순 교수(44)의 사모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하신 많은 동창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3,000의 donation을 보내 주심. 직접 전화를 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렸음.
4. 총무 보고 (서인석 총무)
 - E-mail 주소를 포함한 새 directory 발간이 최우선의 과제임. 앞으로 모든 공지 사항 및 연락은 e-mail을 이용할 예정임.
 - 일년간 모든 서류 및 공지 사항을 CD에 담아 내년 회장단에게 인수 인계할 예정임.
5. 재무 보고 (심인보 재무 - 서인석 총무가 대신 보고)
 - 전 회장단에서 일부 이월된 \$ 10,000를 포함 현재 \$38,980의 잔고가 있음.
6. Committee Reports
 - Finance (최순채 위원장)
 - Directory 발간 비용 \$10,000을 포함한 2005-2006 Proposed Budget를 보고함. 6월 18일 대의원에서 발표한 잔고와 오동환 재무로부터 보고된 잔고 (채무원 전 Finance 위원장이 audit 함)와 은행 잔고에 차이가 있어 다시 확인 후

정확한 이월 금액을 포함한 Proposed Budget를 10월 1일 시계탑에 게재할 예정임.

- 2003-2004 Financial Report가 시계탑에 게재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고 늦게라도 게재할 것을 강조함.
- Scholarship (문대욱 위원장 - 서인석 총무 대신 보고)
 -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장학금 신청을 꺼려하는 동문 자제들을 동기회장 및 지부회장이 추천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임.
 - 개인 자격으로 모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를 원하는 동문 자제가 모교와의 연락 및 장학금 선발에 고충을 겪고 있음을 보고 함. 이만택 위원장께서 이 경우 tax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동창회 장학기금을 통해서 지불되어야 함을 지적함.
 - 송관호 이사께서 지난 몇 년동안 "Named Scholarship"이 실종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복원시킬 것을 건의함. (이준우, 김광훈, 이내열, 박승서, 권기홍 등이 확인 됨.) 이만택 위원장께서 앞으로의 'Named Scholarship'은 한시적으로 지불 할 것을 건의 함. 토의후, '5년간' 한시적으로 지불 할 것을 결정함.
- Fund Raising (추재욱 위원장)
 - Executive committee에서 의논 및 결정한대로 directory 발간, Annual Ball 및 Summer Convention을 위해 한국에 있는 큰 병원들 및 미주의 개업의들에게 광고를 부탁할 예정임.
 - 임원진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donation을 권장 할 예정임.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 위원장 - 백승석 CFA가 대신 보고)
 - 지난 몇 년간 격동기 동안에도 매년 \$20,000의 장학금을 지불하고도 년 평균 8%의 gain으로 8월 15일 현재 \$ 405,440 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이만택 및 추재욱 위원장들께서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함.
- Publication (김병석 위원장)
 -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고 부족함. 특히 지부 및 동기 소식이 부족함.
 - 시계탑의 오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남가주 시계탑' 발간에 관한 의제로 8월 31일 긴급 회의를 가졌음. 조동준 차기회장 및 김홍서 이사께서 남가주 지부 회원으로써의 의견을 발표함. 남가주, 시카고등 큰 지부에 한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위촉할 예정임.
- Advisory (이만택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Research & Fellowship (오태희 위원장)
 - 9월 30일이 마감인 2005년 합춘의 학상 후보 신청이 현재 1명임: 염선영 동문 (2002년 졸업, 현 UMDNJ 정신과 수련중임. 지난 6월 세계 생물 정신의 학 협회에서 젊은 과학자 상을 수상함).
- By-Law (노용면 위원장)
 - 지부 명칭에 대해 보고함. 남가주 지부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남가주동

창 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South California)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미주서울대학교의과대학 동창회 남가주지부 (South California Chapt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로 고쳐야 한다.

Nominating (이한중 위원장)

- 송관호 이사께서 동창회 정관에 의하면 위원장은 immediate past president, 위원은 지난 회장들 가운데 4명과 각 지부회장 가운데 4명을 현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함. 지난 몇 년 동안 위원장 임의로 위원들을 임명한 후 차기 회장 및 이사를 선출하였음.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건의, 만장일치로 통과 됨. 최준희 회장께서 조속히 위원들을 임명할 예정임.

Green Project (서인석 위원장)

- 전임 조명호 scholarship 위원장께서 현 회장단에 위임한 모교 학생 부원 scholarship 수혜자로 배은신, 남석현, 신재홍, 송영도, 신재현 등 2005년 졸업생 5명을 추천 결정함. - 2000년 졸업 강현석 동문(Pittsburgh University)에서 Molecular Pathology fellow 수련중)이 미국 진출을 꿈꾸고 있는 의대생 및 졸업생들의 현 상태를 보고하며, 좀 더 유용하게 그들을 도와주는 방안으로 재학생들 간에 '동아리회' 조직을 도와주기를 부탁함. 참석한 많은 임원, 이사들께서도 아주 유호 적절하고 근본적으로 도와 줄수 있는 방안임에 공감함.

위원장이 현재 약 \$26,000의 Green Project fund 중 \$4,000을 지원할 것을 건의, 만장일치로 통과 됨. 이만택 위

원장께서 반드시 지도교수를 모시는 학생회 등록 단체로 할 것을 건의함

- 송관호 이사께서 officer가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동창회 법규를 지적함. 최준희 회장께서 새 위원장을 물색, 임명할 예정임.
- Silver Project (민경탁 위원장 - 최준희 회장께서 대신 보고)
 - 송관호 이사의 건의로 금년에도 계속 Ad Hoc committee로 인준할 것을 건의, 최준희 회장이 동의함.
 - 지난 3월 시계탑을 통한 survey에 응답한 회원이 10명 미만으로 극히 저조함.
 - 교회 등을 통해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동창 회원들이 많음. 종교 여부를 떠나 많은 동창 회원들의 동참을 장려함.
 - E-mail 과 web site 를 통한 회원들 간의 대화를 장려함.
 - 10월 초에 있을 Silk Road trip에 2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가 예정임. 서울대학교 동창들에게도 참가를 허용할 예정임.
- Summer Convention (권정덕 위원장 - 최준희 회장께서 대신 보고)
 - 2006년 Summer Convention은 6월 25일(일)부터 29일(수)까지 뉴저지 Atlantic City, Taj Mahal Hotel에서 있을 예정이며 8월초 \$5,000의 Deposit을 했음.
 - Scientific session과 그의 event들의 시간 배정을 원활히 조정하겠음.
 - 서인석 총무가 연극반 등의 reunion을 추진하고 있음.
- Scientific (최영자 위원장)
 -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예일대학교 총장을 key note speaker로 초청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가능한 한 young member speaker 들을 많이 포함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 7. New Business
 - Hurricane Katrina 수재의연금을 기탁하자는 의견이 나와 만장일치로 가결 됨. 금액은 \$3,000 이내로 회장단에서 결정할 것을 위임함.
 - 오용호 대뉴욕지부 회장이 9월 24일 Bergen Hill CC에서 있을 골프 outing에 많은 참석을 부탁함.

폐회 동의, 제청으로 오후 9시30분에 폐회 함. 다음 회의는 2006년 3월 4일에 있을 예정 임. - 기록: 서인석 총무

Proposed Budget for the Fiscal Year of 07/01/05 ~ 06/30/06

Revenues	
Transfer from previous year	\$25,000
Membership dues	65,000
Transfer out to scholarship fund	(7,900)
Fundraising, donations, and other income	20,000
Total	\$102,100
Expenditures	
Sigetop Publishing (Printing and mailing)	\$22,500
New Directory	10,000
Payroll and payroll tax	23,000
Revenue sharing	3,500
Professional fee	2,300
Rent	11,400
Telephone	1,800
Utilities	700
Water	270
Postage and shipping	1,500
Travel reimbursement	2,500
Committee meetings	2,500
Printing, Office supplies	1,300
Subtotal	\$83,270
Emergency reserve fund	18,830
Total	\$102,100
Excess of revenue over expenditures	\$0

Prepared by Finance Committee
 Soon C. Choi, MD (66)

동문동정

민병덕(59) - 미국장로교신학대학 이사장에 선출됐다.
 김승업(60) - 동문은 한국 줄기세포학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0월 1일 수원 아주대병원 강당에서 한국 줄기세포 학회 창립총회와 기념 심포지움을 주재한다. 이 학회는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가 세계의 최첨단을 달리는 현황에서 줄기세포의 기초연구와 임상응용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한국이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자리를 굳히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준비위원회에는 김효철 아주대 의무 부총장, 문신용 서울의대 교수,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장, 왕규창 서울의대 학장, 정풍만 한양의대 학장, 정필훈 서울치대 학장, 그리고 황우석 서울수의대 석좌교수가 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김동문은 인간 신경 줄기세포와 인간 골수간엽 줄기세포의 세포주를 사용한 뇌졸중, 뇌종양, 파킨슨병의 세포 치료법을 개발하여 임상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문은 또한 현재 한국 조직 공학-재생의학회 회장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의료분야인 재생의학 진흥에 노력하고 있다.



뉴욕지역소식

모처럼 선선한 가을 맞은 지난 9월 24일 뉴저지의 Rivervale에 위치한 Bergen Hills Golf Course에서 뉴욕지부 추계골프모임(제2회 이규용배)을 갖게 되었다. 이번 모임에는 총 35명의 동문과 16명의 영부인 및 한 명의 2세 도합 52명이 참가하는 오랫동안의 대성황을 이루었다. 오랫동안의 모임이어서 많은 동문들이 그 동안 격조를 풀게 되었다. 하지만 저희 동창회의 최 노력장이시며 몇년전 뉴욕지부 추계대회를 위해 우승배를 기증해 주신 이규용(41)선배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모든 동문들이 아쉬움을 달랬다.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사를 드린다. 오랫동안 아주현대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작년에 되돌아오신 이희경(61)선배님 부부, 이 대회를 위해 한국에서 오신 추광철(66) 선배님 부부 및 후로리다에서 온 김재석(72)동문 부부께 감사사를 드린다.



특히 이번 golf outing에서는 class competition이 있었는데 각 학년마다 best four player's score를 합산하여 자웅을 겨뤘다. 4명 이상이 참가한 팀(63, 64, 75, 73)과 몇 기를 합친 혼합 두 팀(61년 이하, 66년 이상) 도합 여섯 팀이 자웅을 겨루었다. 66년 이상 혼합팀(추광철 66, 한영수 67, 정인용 71, 김웅진 74, 백승원 79)이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한 63년팀(8명)을 한타차로 누르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여, 오용호 회장으로 부터 금일봉을 수여받았다. 영예의 수상자는 남자부 메달리스트 석창호(72), 장타상 이호빈(60), 근접상 한태진(64), 여자부 메달리스트 미세스 정인용(71), 장타상 미세스 윤영섭(63), 근접상 미세스 김재석(72)이다. 내년 춘계 golf outing(김재남 배)는 내년 4월 같은 장소에서 가질 예정이다. 더욱 많은 학년팀들의 참가를 바란다. - 오용호(72) 뉴욕지부 회장

뉴욕지부 회장단 인수인계



지난 3년간 뉴욕지부를 이끌어 온 정인용(71)회장, 이혁엽(79)총무 및 백승원(79)재무의 노고에 감사사를 드리며 서울음대 연주단이 지난 8월 21일 뉴욕시에서 성대한 공연을 가졌다. 8명의 음대 학생들이 관중을 환호하게 했다. 사진 위 - 음대학생들: 좌로부터 이종철(국악-피리), 이응광(성악-바리톤), 이해정(성악-소프라노), 문선경(국악-해금), 정은혜(국악-관소리), 전하림(바이올린), 김인수(국악-타악) 그리고 제갈소망(피아노) 사진 아래 - 음악회에 참석한 동문들: 좌로부터 정진우(72), 노용면(55), 민병덕(59), 김수곤(59), 최종진(59), 그리고 이흥제(74)



고 있다.
 여천기(62) - 둘째 딸 Monica Joo Ryu 양과 호주에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Justin Richard William 군이 지난 9월 3일 호주 Northbridge에 있는 St. Philip Neri Catholic Church 에서 화족을 밝혔다. 모니카 양은 하버드에서 Biology를 전공했거나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호주에서 일하고 있다.
 한태진(64) - 장녀 수지양 결혼
 신홍식(68) - 지난 7월 16일 Pomona 에 있는 Inland Church에서 신동문의 딸 캐롤라인 양과 1.5세지만 한국말에 능통한 제임스 박군과 결혼식이 있었다. 신양은 Bryn-Mawr에서 학사 보스톤 유니버시티에서 석사를 한 Specch Pathologist이고 박군은 Duke에서 Under 와 Law School을 끝내고 Patent Lawyer 로서 Baker-Mackenzie Law Firm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으며 Woodland Hills 에 신혼의 보금자리를 차렸다.
 최진훈(70) - 10월 뉴욕시의 Merkin Concert Hall에서 The Korean Orchestra of New York의 가을 공연을 지휘했다.
 김백균(78) - 김동문의 부친 김도창 선생께서 지난 7월 17일 83세로 별세하셨다. 고인은 모교 법대교수, 보건사회부, 문교부 차관, 모교 대학원 동창회장을 역임하셨다. 조의를 드립니다.

남가주지부 이사회 소식

남가주지부 이사회가 지난 7월 2일 동창회 유사 이래 최초로 이사장에 추대된 손영진(62)동문 댁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많은 이사님들이 동부인하여 참석하여서 사모님과 따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음식과 마실 것을 곁들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반나절 넘게 즐기고 헤어졌다.

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1) 동창회가 구체적인 통계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약화되어 가는 듯 한데, 실제로 그렇다면 그 이유는 동창회원들의 연령변화, 외부 스폰서쉽 고갈, HMO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경제적 압박, 소장 회원들의 불참 등이 그 원인으로 언급됨.
 미국 타 지역에서 은퇴하여 이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동문들에게 남가주 동창회가 이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또 이주한 동문들을 우리 지역 동창회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동기분들과의 접촉으로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됨.
 소장 회원들의 동창회 참석이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인상에 대하여 소장 회원의 전체 숫자가 적고, 매 학년당 숫자도 적고, 직업활동이 한참 바쁘고, 요즘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엄청 중시하는데가, 경제 상황도 일반적으로 예전만 못한 까닭이 아닌가 여겨짐.
 2) 목요일(매달 셋째 목요일)에 관하여: 이 모임이 근간에 한인의사 사회에 알려지면서 점차 많은 타의대 분들이 참가하면서 서울의대 목요일회가 아닌 '한인의사 사회 목요일회'로 되어 가고 있는 점. 제약회사의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소폰서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점. 매달 우리 수준에 맞는 quality feature speaker를 초청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
 이 날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의결사항은 "오늘처럼 우리 수준에 맞고 즐거운 모임은 몇년만에 처음인데, 적어도 두어달에 한번씩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건의가 아무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통과 됐으나 회장님이 "생각해 봅시다"로 답변하셔서 다음 모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음.
 오동석(72) 보고

61년 동기 소식: 8월 20일 ~ 29일 사이 콜로라도 여행

Denver에 사는 김유홍 동기회장의 인도로 한국에서 참가한 심영보 지삼봉 두 부부를 포함한 50명의 부부들이 Bus와 Railroad기관차를 번갈아 타며 Denver, Colorado Springs, Pikes Peak, Alamosa, Royal Gorge Park, Great Sand Dunes National Park, Pagosa Springs, Mesa Verde National Park, Durango, Black Canyon of the Gunnison National Park, Grand Junction, Glenwood Springs, Colorado National Monument, Vail을 순회하는 여행을 했다. 거의 반수 이상이 적어도 part time 이상의 은퇴를 하여 Golden Age의 새로운 취미추구에 몰두하는 자태들을 서로 비취볼 수 있기도 한 즐거운 여행이었다. 많은 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여행 후에 인터넷으로 독서추천과 독후감 등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지고 있기도 하다. 긴 버스 여행의 단조로움을 예측하여 김영철군이 준비해온 음악 비디오, 조은순 군이 제작해서 전원에게 배포한 학창 시절에 애창하거나 애청하던 노스탈지아의 음악 디스크, 여행 중에 열심히 찍은 디지털 사진과 movie를 모아 CD로 구워 보내준 오정환 김유홍 군들, 그리고 베테랑 여행가인 손기용 군은 여행중의 highlights들을 전문적 해설을 붙여서 email로 보내기도 했다. Snucma61 Homepage를 개발운영하고 있는 강창욱 군은 여행기와 사진들을 편집하고 있다. 61년 동기들의 8월 여행은 30년의 전통이 있지만 이번 여행은 기간도 그 중 길었고 여러 면에서 흥겹고 유익한 것이었다. 김유홍 회장의 탁월한 기획에 모두가 감탄하였고 헤어지기 전날 총회에서 박승균 군을 다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희경 보고

64년 동기 소식

1. 지난 7월 30일(토) 오후 2시 Lincoln Center에서 Bolshoi ballet에 의한 "The Pharaoh's Daughter"를 관람했다.
2. 10월 1일부터 2일간 뉴욕 북부 엘마이다에서 동기 모임을 갖는다.

동창회 온 편지

최준희 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고 이진순 교수의 부인입니다. 이교수는 지난 6월 14일 8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모교를 1943년에 졸업하시고 1972년까지 교직을 맡아 보셨습니다. 이번에 동창회원들께서 바쁘신중에도 조의를 표해 주셔서 한분 한분 인사를 못드려도 지면을 통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동창회 앞으로 적은 정성이거나 \$3,000을 바치오니 감사의 표시로 받아 동창회의 기금에 요긴하게 써 주십시오. 동창회의 앞날에 번영을 기원하면서
 이진순 미망인 원병윤 드림

GENERAL FUND Fiscal Year Ended June 30, 2004

Revenues	
Membership Dues	\$66,915
Scholarship Contribution	\$2,225
Less: Transfer Out to Scholarship Fund	<u>(2,225)</u>
Seung Suh Park Fund	10,200
Less: Transfer Out to Scholarship Fund	<u>(10,200)</u>
Public Donations (Segetop etc.)	11,281
Green Project Revenue	50
Less: Transfer Out to Green Project Fund	<u>(50)</u>
Other Income	614
Total Revenue	78,810
Expenditures	
Bank Charge	\$225
Contributions (Minnesota Medical School)	5,000
Customs Charge and Delivery (Calendar)	
Equipment Rental	1,954
Executive Committee & Committee Meet	1,963
Green Project Related Expenses	698
Fraternity Activities	700
Rent	10,450
Payroll and Payroll Tax	22,997
Sigetop Publication and Mailing	50,578
Sigetop Moonjip	13,800
Postage/Shipping/Delivery	1,954
Printing, Copying, supplies & Office Expense	2,440
Revenue Sharing	
Professional Fee	2,700
Telephone	1,661
Travel Exp. Reimbursements	466
Utilities	1,045
Total Expenditures	\$88,631
Excess of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9,821)

GENERAL FUND BALANCE

Fund Balance as of June 30, 2003	\$19,222
Increase (Decrease)	
General Fund Current Fiscal Year	\$(9,821)
Transfer form(to) Summer Convention	(14,160)
Transfer form(to) Annual Ball	2,194
Previous Fiscal Year Payment Cancellation	<u>(200)</u>
Excess of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u>(21,987)</u>
Fund Balance as of 30, 2005	\$(2,765)

BALANCE SHEET

Assets	
Cash in Bank	\$24,950
Computer	980
Total Assets	\$25,930
Liabilities	
Due to Hamchoon Research Project Fund	1,430
Anesthetist Fund	2,100
Due to Scholarship Fund	920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20,845
Appropriate Fund for Revenue Sharing	3,400
Total Other Increase(Decrease) in Cash Position	28,695
Net Fund Balance	\$(2,765)

MEDICAL CONVENTION

Revenue	
Charity Contributions	\$9,500
Revenue from Members	\$67,260
Refund	<u>(1,110)</u>
Total Revenue	\$75,650

Expenditures	
Banquet, Golf, Entertainment	76,096
Gift and Awards	4,275
CME	4,611
Printing & Copying	2,428
Guest Speaker Honorarium	2,200
Supplies	200
Total Expenditures	\$89,810
Excess of Revenue over(Under) Expenditures	\$(14,160)

* 지난해 시계탐에 게재가 안됐다는 Finance Committee Chairman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호에 게재합니다.

GENERAL FUND Fiscal Year Ended June 30, 2005

Revenues	
Membership Dues	\$61,531
Scholarship Contribution	\$15,465
Scholarship from Membership **see note	8,040
Less: Transfer Out to Scholarship Fund	<u>(23,505)</u>
Public Donations (Segetop etc.)	1,125
Green Project Revenue	2,325
Less: Transfer Out to Green Project Fund	<u>(2,325)</u>
Other Income	
Total Revenue	62,656
Expenditures	
Bank Charge	\$92
Contributions (KAMA)	1,000
Computer Expense	700
Equipment Rental	(350)
Executive Committee & Committee Meet	5,174
Green Project Related Expenses	
Fraternity Activities	200
Rent	10,450
Payroll and Payroll Tax	25,386
Sigetop Publication and Mailing	26,024
Postage/Shipping/Delivery	667
Printing, Copying, supplies & Office Expense	417
Revenue Sharing	2,810
Professional Fee	2,700
Telephone	1,879
Travel Exp. Reimbursements	536
Utilities	757
Total Expenditures	\$78,442
Excess of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15,786)

GENERAL FUND BALANCE

Fund Balance as of June 2004	\$(2,765)
Increase (Decrease)	
General Fund Current Fiscal Year	\$(15,786)
Transfer form(to) Summer Convention	782
Transfer form(to) Annual Ball	
Previous Fiscal Year Payment Cancellation	200
Excess of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u>(14,804)</u>
Fund Balance as of 30, 2005	\$(17,569)

BALANCE SHEET

Assets	
Cash in Bank	\$24,606
Computer	980
Total Assets	\$24,586
Liabilities	
Due to Hamchoon Research Project Fund	1,430
Anesthetist Fund	
Due to Scholarship Fund	14,155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23,170
Appropriate Fund for Revenue Sharing	3,400
Total Other Increase(Decrease) in Cash Position	42,155
Net Fund Balance	\$(17,569)

MEDICAL CONVENTION

Revenue	
Charity Contributions	\$31,975
Revenue from Members	\$87,094
Refund	<u>(3,950)</u>
Total Revenue	\$115,119

Expenditures	
Banquet, Golf, Entertainment	86,094
Gift and Awards	400
Tour	3,570
CME	
Printing & Copying	
Guest Speaker Honorarium	21,500
Supplies	2,773
Total Expenditures	\$114,337
Excess of Revenue over(Under) Expenditures	\$782

Note ** \$15 from each membership payment

* 이 재무보고는 "accrual basis" 회계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05~2006 Executive Officers and Committee Chairman

	NAME	HOME	OFFICE	FAX	ADDRESS	E-MAIL
President	Choi, John Joonh i(64)	201-969-8480		201-969-8645	Edgewater, NJ	johnjchoimd@yahoo.com
President Elect	Jo, dong Choon (64)	210-544-1019			Rolling Hills, CA	jofamily1@home.com
1st V. President	Kim, Tae Hwan (64)	852-835-7353	612-863-4060	952-897-0621	Bloomington, MN	tae.kim@allina.com
2nd V. President	Auh, Yong Ho (72)	201-224-4809	212-746-2563		Cliffside Park, NJ	yhauh@yahoo.com
Secretary	Seo, In Suk (73)	201-871-9191	718-250-8225	718-250-8879	Englewood Cliffs, NJ	ins9002@gmail.com
Treasurer	Shim, In Bo (83)	718-948-8750	718-836-0009	718-836-1181	Staten Island, NY	bluenote211@earthlink.net
Finance	Choi, Soon Chae (66)	908-561-9240	908-561-9240	908-561-9157	Warren, NJ	soonchoi@aol.com
Scholarship	Moon, Dai Ok (73)	302-427-8880	302-731-0600	302-427-8835	Wilmington, DE	dmoon625@hotmail.com
Fund Raising	Chu, Jai Ock (63)	201-569-3520	201-569-6541		Englewood, NJ	jaiocchu2002@yahoo.com
Fund Management	Lee, Michael M. (66)	914-725-4437	914-787-1000	914-725-2526	Scarsdale, NY	docm4@aol.com
Publication	Kim, Byungsuk (59)	718-460-5190	718-460-5190	718-616-5314	Brooklyn, NY	dkim68@nyc.rr.com
Advisory	Lee, Man-Tack (58)	215-968-3897	609-538-1700		Newtown, PA	nicemmlee@aol.com
Research & Fellow	Oh, Tae Hee (64)	203-397-8622			Wood Bridge, CT	thohmd@hotmail.com
By Law	Rho, Yong-Myun (55)	914-738-4511	000-000-0000	914-738-4511	Pelham Manor, NY	ymrhond@optonline.net
Nominating	Lee, Hahn Joong (65)	248-540-3906	248-569-8087	248-569-3785	Bloomfield Hills, MI	hahnjee@hotmail.com
Green Project	Seo, In suk (73)	201-871-9191	718-250-8225	718-250-8879	Englewood Cliffs, NJ	ins9002@gmail.com
Silver Project	Minn, Kyungtak (65)	707-255-5917			Napa, CA	kminn@sbeglobal.net
Former President	Lee, Jai Sung (61)	410-792-7160	410-955-9396	301-776-2868	Laurel, MD	jlee275@comcast.net
2006 SUMMER CONVENTION						
Convention Chair	Kwon Stephan C. (64)	718-815-2393	718-818-3099	718-815-2393	Staten Island, NY	stephankwon@aol.com
Scientific Chair	Choi, Young Ja (66)	203-629-5373	203-384-3025	203-384-3237	Greenwich, CT	toung.choi@yale.edu

2005-2006 LOCAL CHAPTER

CHAPTER	NAME	HOME	OFFICE	FAX	E-MAIL
New England (Boston)	Choi, In -Sup(72)	781-899-3683	781-744-3330	781-744-5630	insupchoi@lahey.org
Greater New York	Auh, Yong Ho (72)	201-224-4809	212-746-2563		yhauh@yahoo.com
Central NY (Syracuse)	Lim, Ung Kyu (69)	315-245-3659			uklim00@hotmail.com
Western NY (Buffalo)	Byun, Stanley Young Surk (69)	716-763-2016	716-664-8670	716-664-8670	sbyun@stny.rr
Northern NY (Albany)	Han Sung Taik (57)	845-331-7712	845-331-2613	845-331-2613	shan242700@aol.com
Greater Philadelphia	Lee, Soong Kong (69)	610-406-0262	610-378-2230	610-378-2803	soonglee@yahoo.com
Pittsburgh	Lim, Jae Hong (71)	724-651-5183			jhkpmr@adelphia.net
Maryland	Lee, Dae Hoon (78)	410-296-3809	410-766-9099		daehoonlee@aol.com
Northern OH (Cleveland)	Kim, Young Hwan (60)	216-831-2740	216-363-2240		kilchak@aol.com
Central OH (Columbus)	Choi, Kwang Taik (70)	614-939-0880			kwangtaikchoi@yahoo.com
Western OH (Cind. Dayton,)	Lee, Kun Il (68)	513-891-1699	513-686-3000		kleetraveler@aol.com
Minesota	Kim, Tae Hwan (64)	952-835-7353	612-863-4060		tae.kim@allina.com
Taxes	Kim, Poong Young (72)	713-461-3664	713-973-2550		soniak@aol.com
Southern CA	Lee, Nicholas S. C. (70)	562-494-3146	562-597-0376	562-986-3870	nickobgyn@yahoo.com
Michigan	Moon, Jay K. (68)	248-486-1194	313-745-8521	313-336-7044	jkim12843@yahoo.com
St. Louis Vicinity	Kang, Chang Suk (80)	636-532-8396			kangs.5@yahoo.com
Greater Chicago	Kim, Yoon Tae (69)	847-446-9058	773-792-5133	847-446-9163	ycknhk@yahoo.com

2005-2006 Class Representatives

CLASS	NAME	HOME	OFFICE	FAX	E-MAIL
55	Kim, Ung Sik	614-889-8873			
57	Chung, Edward K.	407-876-9494		407-876-6694	
58	Lee, Manuel Man-Tack	215-968-3897	609-538-1700		nicemmlee@aol.com
59	Choi, Jong Jin	631-979-6579	631-862-3540		choi007@optonline.net
60	Lee, Ken K.	805-527-8622		818-915-1610(C)	kenyoungwhalee@hotmail.com
61	Park, Seung Kyoon	716-688-5150	716-898-5090	716-898-5332	skpark@buffalo.edu
62	Nam, Sung Hee	248-851-5393			sunsnam@comcast.net
63	Sunew, Kenneth Young	914-328-2140	212-604-7556 ext	1252 212-614-2637	
64	Lee, Hong Pyo	310-541-4208			hplee@hotmail.com
65	Ihm, Hyun Jae	630-377-0323	847-695-1620		hyunihm@yahoo.com
66	Chung, Joseph Yangsoo	828-652-7112	828-652-5818	828-659-8400	iysechung@verizon.net
67	Choi, Byung Sik	732-932-0689	732-280-2727	732-280-1147	mjchoi@yahoo.com
68	Kim, Hi Joo	248-646-3343	313-240-7595		skyphy@amerech.net
69	Uhm, Kyudong	973-777-5290	973-471-0981	973-471-5818	kpuhm@msn.com
70	Yin, Chung Kil	740-548-2088	614-234-8050	740-574-0377	yin500@aol.com
71	Oh, Dong Whan	248-855-1109	810-762-8490	810-855-6373	dongwhanoh@hotmail.com
72	Suk, Chang Ho	516-466-0399	718-461-6212	718-539-1238	changhsuk@aol.com
73	Moon, Dai Ok	302-427-8880	731-0600	731-427-8835	dmoon625@hotmail.com
75	Kim, Wun Jung	734-856-1455	419-383-3815	419-383-3098	wjkim@meduohio.edu
76	Park, Se Hwa	918-749-1714		918-494-9385	edroberks@yahoo.com

24회 동기회 졸업 35주년기념 태국여행기

홍 권(70)

작년 3월에 오하이오에 사는 동기회 장인 인정길군으로 부터 소식을 받기를 졸업 35주년 기념으로 모이는 것을 준비하는데 어디가 좋겠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일본과 태국을 예를 들어서 물어 왔기에 금방 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고 2월초에 추운 일본 보다는 따뜻한 태국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후 여러차례 이메일이 오가고,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구정인 2월 9일 전후하여 여행을 하면 한국에서 개업을 한 동창들이 많이 참석을 하리라고 추진을 하여 5월에는 대강 여행 스케줄을 짜고 미국에 있는 동기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기에, 그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기다리면서 기왕에 태국을 가는 김에 북부 산지족을 찾아가서 의료선교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방콕에 계신 오세관 선교사님의 이멜주소를 알아내어 연락을 하고, 마침 그해 여름 시카고에서 있던 한인선교 대회에 참석차 오시게된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상황을 듣게되고 구체적인 여행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동기생들중에 의료선교에 관심을 표했던 친구들과 같이가서 실제 몸소 체험을 할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생각과 달리 여러 날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막상 오지에 가서 환자를 진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이멜과 편지 그리고 전화를 했으나 한 분도 같이 갈수가 없게 되고, 우리 부부 둘이서만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의약품을 기증받고 장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1월 27일 태국으로 떠날때는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바로 그전 성탄절 이튿날 지진해일 쓰나미가 동남아를 휩쓸고 간 후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집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이 있는 태국을 들어 가는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 이었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변경하고 남쪽 푸켓으로 가서 수재민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할까도 생각했으나 이미 태국의사들이 많이 동원되었고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의 구호의 손길이 돕고 있는중이고, 그곳에 가서 자원 봉사로 수고하고 돌아오신 선교사의 말씀으로는 우리 부부 두사람 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판단하에, 쓰나미 희생의 푸켓과는 반대 방향인 북부 산지로 향했습니다.

태국 국내선 비행기는 작고 많은 승객으로 붐볐지만 무사히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현지인 목회자의 픽업 트럭을 타고, 미안마 국경에 자리잡은 태국의 가장 북단에 있는 '치앙셴'에 가자 마자 환자를 보기가 시작하고, 선교사 아들 곁에 있고 싶다고 한국에서 오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금장생'이라는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먹고 '왕룡'호텔에서 편안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다음날 부터 옛날 삼국통일을 한 신라사람들을 피해 이주했다는 전설의 고구려 후예들인 '악루' 족속들이 사는 '사마키카오' 부락을 두어시간 꼬불꼬불 산골길을 뒤편쳐서 찾아가서, 절구와 부엌 그리고 여러가지 성격이 우리 한민족과 같은 멀리 떨어진 형제 자매를 만나서 진료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안마와 라오스 세나라가 만난다는 '황금의 삼



각주'에서 메콩강을 모터보트로 건너서 라오스 땅을 딛어보고 뱀이 들어있는 술병을 진열하고 파는 상점을 눈요기만 하고, 다시 태국으로 건너와 '반다이'라는 곳에서 다시 진료를 하였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온 대학생 6명이 같이 동참하게 되어 진료할때 도와주고 같이 먹고 자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으로 꼬불꼬불한 산골길을 찾아서 이번에는 '리후'족속이 사는 '후아이막 켄'이라는 곳의 국민학교에서 전교생을 건강진단하듯이 보고 기생충약을 일괄적으로 투여하고 곰팡이 약을 필요한대로 주고 그 동네의 사는 모습을 돌아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시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관광요지이기도한 '치앙마이'에 도착하여 관광호텔에 들어서 처음 하루 25불짜리 좋은곳에서 잠을 자고 부페식 저녁식사를 한사람당 2불씩 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온천지가 있는 곳을 방문하고 우산을 만들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곳을 구경하고, '리' 라는 곳에서 또 진료를 하고, 태국의 유명한 '인타나온 국립공원' 근처에서 자고 그 다음날 '바찌라탄' 폭포를 구경하고 나서 '카렌' 족속이 사는 산속에 들어가서 화려한 고유의 복장을 입고온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고 돌아 오는 길에 길가에서 들꽃을 파는 어린 소녀한테서 꽃다발을 10전에 사서 집사람에게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열마전에 들어온 전기불 아래서 환자를 보느라고 모든 접수한 환자를 보고나니 밤 9시가 되어서야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어디선지 작은 생일 케익을 구해온 선교사님이 고맙고 이역만리 산골속에서 감개무량한 생일을 맞는 아내가 고맙고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리수' 족속이 사는 '메타만'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하고, 국민학교를 방문하고 전교생에게 기생충약을 주라고 하며 볼펜 등 가지고 간 선물을 증정하고, 근방에 있는 코끼리 사육장을 방문하고 커다란 길들인 코끼리를 타고 강을 건너 오후의 햇볕을 받으며 태국의 정취를 만끽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은 북부 산지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침 '치앙마이 꽃축제'가 연례 행사로 열리는 것을 볼 기회가 있어서, 태국의 고유의상을 입고 꽃차를 타고 북을 치며 즐기는 태국사람들과 관광객들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의료선교의 일정을

마치고 2월 5일 '치앙마이'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졸업 35주년 재상봉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위해 그랜드 호텔에 도착하여 인천에서 단체로 오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로 35년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었고 너무 변한 모습으로 서로를 잘 알아보지를 못했으나 곧 옛 모습을 상상하면서 인사를 하고 앞으로 짧으나마 같이 지낼날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마친후 편안한 에어컨다운이 나오는 버스를 타고, 북부산지에서 픽업트럭에서 시달리던 것과는 아주 상황이 다른, 관광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에메랄드 사원'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담화로 시간이 가는줄을 모르고, 다음 '그랜드 팔러스' 왕궁을 보고 모든 참석한 친구들과 부인들의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방콕 시내를 흘러가는 짜오짜라야 강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새벽사원'과 '수상시장'을 보고 점심을 든 후에 다음 목적지인 '빠따야'로 향했습니다. '미니시암'이라는 미국의



에콰센터에 버금가는 관광지에 한국 남대문 모형이 있는 것이 흥미로왔고, 몬티엔 빠따야 호텔에 도착하여 시원한 바다가 내다보이는 14층 방을 배정받고, 이제껏 하루 10불 짜리 방에서 자던 사람이 150불 이상의 최고급 호텔에서 쓸쓸스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잠시, 금방 적응하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태국식 'M K 수끼' 라는 요리를 들고, '알카자' 라는 쇼를 보러 갔는데 모두 아름다운 미녀들의 노래와 춤을 본줄 알고 나와서 들으니 모두가 '카투리'(여성화장한 남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는 한국 노래도 유창하게 부르는 것을 보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일것이지 틀림없

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태국까지와서 태국안마를 안받고 갈수 있느냐는 안내원의 권고에 따라 모두 남녀 따로 입장하여, 태국 여인들이 아플정도까지 때리고 주무르는데 몸을 맡기고 북부 산지에서의 여독을 마음껏 풀었습니다.

다음날은 새벽부터 골프치는 친구들은 이미 떠난 후에 관광조는 남아서 아침 부페를 즐기고, '산호섬'으로 스피드 보트를 타고 가는데 김병국동문은 너무 배가 아래위로 요동을 하는 바람에 허벅지를 크게 다치었으나 다행히 중상은 아닌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산호섬'에서는 시원한 해변에서 더러는 수영을 또는 바나나보트 등을 타고 즐기며 한나절을 보냈고, 돌아오는 도중에, 파라세일을 하라고 권하는 바람에 별로 용기가 없는 동문과 부인들도 잘 인도하는 보트운전사들 덕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을 한식으로 즐기고 오후에는 '논늑' 촌이라는 곳과 코끼리 쇼를 보고, 오는 길에 석양이 뉘뉘였을 지는 때 코끼리를 타고 태국의 정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저녁은 바닷가의 해산물 부페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도 되는지를 의심하면서 한잔씩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 기울이고, 마지막 순서는 공식회의는 아니지만, 모물섬이라는 가라오케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 하면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드디어 태국의 마지막 아침이 되고 끈질긴 골프광(?)들은 새벽에 짐을 싸고나서 골프장으로 향하였고, 나머지는 '호랑이 동물원'에서 각종 진귀한 호랑이들을 보고, 악어쇼에서 벌린 악어의 입속에 머리를 들여미는 곡예를 손에 땀을 쥐며 구경을 하고, 근처의 '파인 애플 농장'에서 금방 딴 단물나는 과일을 먹으면서, 또 여러 쇼핑하는 곳을 둘러서 나머지 물건들을 사느라고 법석을 벌인 후, 메리웃 호텔에서 마지막 저녁을 들고, 태국 고유의 무용과 음악을 들으면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친구들과 헤어지기를 섭섭해 하면서 술잔을 나누며 인사를 고해야 하였습니다.

우리를 실은 버스가 돈무암 공항에 내려주고 구정의 연휴를 지내고 부라 부라 귀국하는 친구들을 전송하고 나니 이제 오랜 태국의 여행도 끝인가 싶고, 북부 산지에서 만난 어린아이들이 눈앞에 아롱거리면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태국을 뒤에 두고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균수명과 최대수명

김 승 엽(60)

중국에서는 고래로 동방에 봉래산(蓬萊山)이라는 낙원이 있어서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선인(仙人)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는 불로불사의 약을 얻기 위하여 서복(徐福)을 동남동녀 오백과 함께 봉래산으로 보내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제주도 한라산(漢拿山)이 바로 봉래산이라 전해 온다. 이 같이 옛으로 부터 모든 사람이 오랜 세월을 젊고 신선하게 생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북미는 물론이고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고국인 한국에서도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료수준의 향상이 있어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의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그 비율이 15%가 넘어서 수년 안에 총인구의 20%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고령사회에 들어간 세계 여러 나라가 직면하는 곤란한 문제가 이들 노년 인구의 의료와 복지관리 그리고 생존권의 향상이다. 오랫동안 노화와 수명결정의 메카니즘이 배일에 가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현대과학 특히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진보에 따라 장수유전자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수명결정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장수유전자에 의한 것이며 어느 부분이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인가,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서 현대 과학은 해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대수명과 평균수명이란 정의가 있다. 최대수명은 그 동물이 최대한으로 생존 하는 기간을 말하고 평균수명은

그 동물종속이 생후 평균적으로 어느 기간 생존 하는가를 말한다.

사람 이외의 동물에서는 최대수명과 평균수명과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적에게 먹혀버리거나 기아나 병으로 일찍 죽어서 최대수명에 도달하기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쥐(마우스)의 경우 온도 조절이 되고 먹이를 충분히 공급되는 실험동물실에서 사육하면 3년은 살수가 있어서 쥐의 최대수명이 3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야생의 쥐의 경우 1년 뒤까지 살아남는 것이 100마리 가운데 2마리도 안된다고 한다. 자연의 적이 없다는 사자의 경우에도 최대수명을 누려서 노쇠로 죽는 동물은 10% 이하라 한다. 이같이 야생동물에서는 외적, 질병 등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따라서 최대수명까지 생존하는 수가 극히 적다. 사람의 경우에도 석기시대(1만년~2천년 전)에는 발굴된 인골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수명이 남자 여자 더불어 14.6세였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이씨조선조에서는 평균수명이 20세 로 추정된다. 이것은 일본의 에도시대(이씨조선 광해군 이후에 해당)의 일본인 평균연령이 20.3세였다는 보고로부터의 추정이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식량사정이나 의료사정이 더욱 열악하였으니 석기시대의 14.6세와 이조시대의 20세의 중간되는 17세 전후라 생각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998년 보고에 의하면 세계인의 평균수명이 66세라 한다. 그런데 한나라의 평균수명과 GNP(국민총생산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평균수명이 높은 것이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75%이상의 사람이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있으며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가 2천만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 가난한 나라에서의 수도, 변소, 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정비, 백신의 보급, 의약품의 공급 등 의료환경의 개선이 있어야 하며 기아에서 벗어나도록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여 빈곤한 개발도상국의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도록은 세계 특히 부자나라가 관대하게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 여러나라 의 평균수명을 보면 남녀차가 커서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4년에 여자가 79세 남자가 73세로서 6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더라도 2005년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남자는 16명인데 비하여 여자는 55명이라 하니 여자가 남자 보다 장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장수한 사람은 기네스북에 의하면 1997년 프랑스에서 사망한 잔느 칼망이란 여자인데 122년 164일 생존 하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2005년 2월에 110세로 사망한 최애기 할머니가 가장 장수한 사람이다. 이같이 세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세된 남자 즉 남성 성기를 제거하면 장수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까지 정신박약자 시설에서 법적으로 거세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세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69.3세인데 비하여 거세하지 아니한 같은 시설의 남자는 55.7세였다고 한다. 중국에서 환관, 한국에서 내시라 하는 거세한 남성이 궁정에서 권세를 부렸다고 역사가 전하는데 이들이 정상인 남자 보다 장수 하였는지는 기록이 없다. 남자에서는 기초 대사량 즉 안정시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이 여자에 비하여 5% 높다고 하며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체내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따라서 남자에서는 여자에 비하여 산소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된다고 생각 할수 있다. 여성에서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면역기

능과 호메오스타시스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쥐에서도 숫놈의 고환을 절제하였더니 수명이 연장되었고, 이와 반대로 암놈의 난소를 제거하였더니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한다. 이같이 성호르몬이 수명을 지배한다는 설명이 유력하다.

다른 학설에 의하면 남녀의 염색체의 구성차이가 수명을 지배한다고 한다. 사람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여자는 X염색체를 2개 남자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X염색체는 비교적 큰 사이즈로 200개의 유전자를 가진데 비하여 Y염색체는 작아서 4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X염색체에 변이 또는 결손이 있으면 X염색체를 두개 가진 여자에서는 다른 하나의 X염색체가 이것을 보충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남자는 X염색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결손이 그대로 계속되어서 혈유병이나 색맹 등의 유전병은 남성만이 고생하게 된다.

다른 하나의 학설에 의하면 남녀의 환경적인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남녀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수명이 짧은 것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서 병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수명 단축이 있다는 것이다. 남자에서 여자보다 자살이나 사고에 의한 사망이 높은 것도 이러한 환경과 사회적 요인이 남자가 여자보다 단명 하는 원인이라 하는 학설의 근거가 된다. 최근 여자의 사회 진출이 많아져서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고 담배와 술을 마시는 여자가 증가하는데 남녀 수명차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페미니즘이 사회적으로 통용 된지 이삼십년이 넘지 않은 현재 역학적 연구가 나오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앞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 과제라 하겠다.

- 이 글은 필자가 오는 10월 서울 삶과 꿈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불로장수의 과학(不老長壽의 科學)"에서 일부를 발췌 하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59세 남편(E)이 관절염약 Vioxx 복용으로 인해 심장병으로 급사했다는 이유로 Vioxx 제약사 Merck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은 초심에서 원고(사망자 측)가 승소했다.

말장 난 Vioxx소송의 첫 케이스인 이번 판결은 원고(E 미망인)에게 2억 5천3백만(253M)달러라는 엄청난 배상금 언도를 내렸으며, 상소심에서 번복될 수도 있겠으나 만일 피고(제약사)가 다시 패소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은 텍사스의 CAP(의료과오보상금) 상한액)법에 따라 3천만(30M)달러 이하로 줄어든다. 현재 전국적으로 Vioxx 소송이 계류되고 있는 건수만 해도 4200건이나 되고, 만일 텍사스 케이스처럼 배심원들이 원고편만 들어준다면 Merck사는 3백억(30B)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감당해야하니 회사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원고는 8개월간 Vioxx를 복용했던 남편의 죽음을 두고 "Vioxx가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E의 부검소견엔 진행된 동맥경화증이 있을 뿐, 관상동맥의 막힘(혈전)은 전혀 없었다. 사망진단은 '심장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으로 돼있다.

피고(Merck사)측 증인으로 나타난 병리학자는 "E의 부검소견은 Vioxx와 전혀 무관하다"고 증언했고, Vioxx가 부정맥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데이터는 없다.

그런데도 원고변호인 T는 E가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제시가 없었고, 그 대신 Merck사가 소비자상대로 한 Vioxx의 과대광고선전이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표적삼아 제약사에 불리한 모든 자료를 제시해서 매도함으로써 배심원의 감성에 호소하는 효과를 노렸

다. 그리고 Vioxx를 비롯한 관절염약(COX-2 억제제)의 심장병리스크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신약(Vioxx)승인과정에서 FDA는 심장병 리스크에 대한 경고 레테르 부착을 원했으나 Merck에서 저항했다는 기록을 원고변호사(T)가 공개해서 피고를 비난했다.

T는 요술사로 변신한 듯한 그의 언변이 배심원을 감동시키는 특기가 있

었으며, COX-2제의 심장병리스크와, Vioxx의 소비자에 대한 과대광고 및 시장철수에 대한 글은 필자의 '건강동보기' 글(www.bosa.co.kr)에서 'Vioxx 회수소동'(2004. 10. 25)과 'Vioxx 흥망성쇠'(2004. 11. 4)를 참조 바란다.)

민주적이라는 배심원 재판은 이번 텍사스 소송에서 보듯 자칫 잘못하다가 는 지성적 논리와 이성을 잃은 인민

Vioxx 판결有感

김 일 훈(57)

재판식으로 흐르고, 특히 의료과오소송의 원고변호사는 작전상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술 여하에 따라 재판결과가 좌우된다.

배심원은 제소된 법원 소재지의 거주자 가운데서 100명을 차출해서, 그중 편견없이 보이는 중립적인 사람 12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사건과 무관한 중립인물을 강조한 나머지 그들의 학식이나 논리적 판단능력 여부는 배심원 자질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판결은 배심원 권한에 속함으로써, 변호과정에서 그들의 점수를 따는 일이 민사를 결정한다.

사망한 E의 후처 미망인에게 지불하라는 2억5천3백만(253M)달러의 내역은 '제약사의 잘못으로 입은 손실'(punitive damage)에 대한 보상금 2억 2천9백만(229M)달러와 원고(미망인)의 고통에 대한(pain and suffering)위자료 2천4백만(24M)달러이다.

어, 사회에 소문난 법정변호사로 알려진 자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T는 진실을 가려야하는 법정을 마치 유명연사로 초대받은 장소인양, 배심원 상대로 철면피한 연출에 열중했다는 후문이다.

피고측 Merck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90분에 걸친 반대신문에서 집요하게 원고(소송 제기한 E 미망인)의 사적문제, 이를테면 원고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E의 전처 자식과의 관계를 추궁해서 노출시키는 등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 돈을 위해서 소송 제기했다는 인상을 배심원에게 심어주려는 듯해서, 오히려 배심원의 반감을 샀다고 한다.

이번 소송에서 논쟁의 핵심은 "E의 사망이 과연 Vioxx와 직접 연관이 있나"하는 명제인데도, 원고변호사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Merck사의 과대광고를 물고 늘어진 결과가 천문학적보상금(\$253M)이다. <참고로 관절

사인이 확실치 않는 원고측에 생활비 보상해주는 일은 몰라도, 2억5천3백만 달러라는 상식에 어긋난 판결은 거액을 던져주는 무지막지한 판결은 배심원의 지성을 의심케 하며, "물소" "죽여라" 식의 인민재판을 방불케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TV는 광고를 통해 법정변호사패들이 "Vioxx복용 병력이 있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렸으면 800번호(무료전화)로 문의해서 도움 받으시오"라는 먹이로 매일 환자 낚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이 인간의 난치병 치료에 희망을 줄뿐만 아니라 우리의 QOL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그들 제약사는 인류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실이지 만고불변의 병약 아스피린을 포함해서 모든 약품은 위험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Vioxx 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2천만 명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그래서 2004년 9월 Merck서 Vioxx를 자진 철수했어도, 2005년 초 FDA는 Vioxx 약효를 중요시하여 판매금지처분을 유보하도록 투표로 가결한 바 있다.

심장병은 미국의 제일가는 살인자며 Vioxx를 복용했던 않았던 간에 미국인의 1/3은 심장병으로 죽기 마련이다.

약의 효과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위험한 약물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시일에 걸친 신중한 임상시험을 겪은 연후에 FDA서 신약허가를 해야 한다는 학계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러한 근본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자칭 Vioxx피해자'를 모집하여 재판에서 제약사의 불미한 과거사(과대광고)를 들추어내어, 배심원으로 하여금 바로 그 불미한 귀신이 사람 죽였다는 인민재판식 판결은 합리사회에서 마땅히 기피해야할 일이다.

紙上法醫

증거물의 형태

노용면(55)

하이아트씨(Mr. Hyatt)는 뉴욕시 경찰에서 형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60대 남자였다. 하루는 그가 퀸즈 지하철 역에서 나오다가 세 젊은 강패에게 봉변을 당했다. 강패들이 하이아트씨의 뒤에서 그의 코트를 추겨 들어 머리 위에 뒤집어 씌운 후,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그의 바지에서 지갑과 권총을 꺼내고 도망쳤다. 하이아트씨는 얼른 일어서서 달려가는 강패들을 뒤쫓았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비를 거렸다. 그는 그때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를 만나, 거기에 타고 경찰관들에게 강패들이 도망간 방향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쫓은지 20분만에 세 놈을 모두 잡았다. 그런데 그때 쫓되니 하이아트씨는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그가 급히 병원에 옮겨 갔으나, 응급실에 도착한 후 몇 분만에 사망하였다.

부검시 하이아트씨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라고는 무릎에 있는 몇 개의 가벼운 긁힌 자국뿐이었다. 그는 3년 전에 심판상동맥의 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심장은 비대했고 심근 여기저기에 반흔들이 있었다. 오래 전에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흔적이었다. 그렇지만 갓 생긴 심근경색은 없었다. 새로 이식한 혈관내벽의 한군데에 아주 조그마한 출혈이 있었지만, 그 내강은 열려 있었다. 나는 사망에 관련된 여러 상황들과 부검소견을 주의깊게 검토한 끝에, 그의 사망원인을 허혈성 심근질환

(ischemic myocardial disease)이라 했고 그것을 타살이라고 분류하였다.

젊은 강패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배심원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재판 판결을 관사 자신이 내려야 했다. 아마도 배심원 재판을 하면 시민들이 피해자의 편을 들까바 그렇게 택한 듯 했다.

나는 재판에서 하이아트씨가 비록 심한 관상동맥 경화증과 허혈성 심근질환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그날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심장을 가지고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질병은 있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심장이 폭행으로 인하고 갑자기 생긴 과도한 정신적 흥분과 육체적 부담때문에 급기야는 정지하였으니, 폭행이 죽음의 궁극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측 변호사들이 하이아트씨가 다친 데라곤 무릎에 있는 생채기 뿐이었다고 하면서 내 증언을 뒤집어 보려고 나섰다. 나더러 치명적인 상처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나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내분비 계통에 영향을 주며, 드디어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지를 한참동안 설명하였다.

피고측 변호사들이 몇 사람의 심장전문가와 병리의사들을 불러다 내 의견을 반박하도록 하였다. 이들 '전문가'가 하이아트씨는 오랫동안 갖고 있던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며, 그가 어느때나 사

망할 처지에 있었는데, 지하철 사건이 아주 우연히 생겨 그런 결과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폭행으로 심장에 외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는 '전문가'마저 있었다. 그들은 심장이 크고 심근의 섬유화가 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급사할 수 있는지를 연거푸 설명하였다.

심장이 나쁜 사람이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폭행을 당하면 살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심해야만 타살이라는 법은 없다. 갓난 아이를 죽이거나 권투선수를 죽이거나 살인은 마찬가지로이다. 살인여부의 판단은 사용한 힘의 크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과를 짓게 한 책임을 알아내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법의관은 상처의 크기를 보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지니는 여러가지 환경 상황을 잘 조사한 후에 인과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는 법의관의 의무에 대해 감의를 할 때면, 꼭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꼼꼼히 듣고, 그들을 질문하고, 그리고 메모를 하였다. 두 달 동안 재판이 계속된 후, 검사와 변호사들이 최종 진술을 했다. 그런 후, 판사가 한 달 가까이 휴정을 취하더니, 드디어 판결을 내렸다. 세 젊은이 모두가 살인유죄를 언도 받았다. 판사는 그의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요점들을 들면서 설명하였다. "절도 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부담이 심장을 멎게 했다." "법의관이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수립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 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내린 판결문이 미국 전국에 널리 알려졌고, 그후 여러 재판에서 인용되고 있다.

중년기 남자가 강도를 피해서 세 블

럭이나 숨차게 도망가다가 드디어 그 지역을 순찰중이던 경찰관을 만났는데, 결국 그가 경찰관의 팔에 안긴채 숨졌다.

어느 추운 날 밤, 노인 남자가 사는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 강도가 이것저것 털고 나더니, 노인더러 옷을 다 벗고 창문 밖에 있는 발코니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 몇 시간이 지나, 노인은 죽어서 발견되었다.

이 두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관상동맥 경화증은 매우 심했다. 몸에 상처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법의관실이 이 두 케이스를 타살이라고 분류했다.

1986년 12월, 흑인 젊은이 셋이 자동차를 타고 백인 강패 마피아(Mafia)들이 많이 사는 뉴욕시 퀸즈의 하워드비치에 갔는데, 갑자기 차 사고가 생겨 모두 차에서 내려야 했다. 그러니 곧 백인 강패들이 나타나 그들을 해치려 했다. 흑인 젊은이들이 도망을 쳤는데, 그중 하나가 쫓기다가 고속도로로 뛰어 들어야 했다. 그 순간 그는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우리 사무실이 이 케이스를 타살이라고 분류했다. 그랬더니, 판 지방 법의관들이 우리 사무실을 나무라면서, 그런 결론은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라 했다. 그들이 이 사건이 지니는 예민한 정치적인 영향을 염려하면서, 법의관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편리하게 잊고 있는 듯 했다. 이 케이스 역시 나중에 매우 중요한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Forensic Medicine in Crimes of Violence,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44:2 1975
2. Yong-Myun Rho: Murder or Suicide,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78:965 1978.

예로부터 사람은 잘 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탓을 한다.

부모의 마음은 달라서 자식이 모자라거나 잘못되면 자기 탓이 아닌가 하고 우선 그 허물을 자기에게서 찾는다.

큰 아이는 몹시 내성적이고 내 앞에서 말도 더듬는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수줍어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나처럼 말씀씨도 없다. 수년전부터 체중이 점점 늘어나기에 여러번 충고를 했는데 의지가 약한지 조금도 좋아지는 기색이 없다.

큰 아이가 한 살이 넘어서였으니 내가 서울 근교에 있던 창동 후송병원에서 군의원 대위로 있던 겨울이었다.

그 당시 창동은 허허 벌판에 도봉산을 등지고 초가집이 여기 저기 박힌 시골이었는데 나는 병원 가까이 방울달린 초가집에 세 들고 있었다.

큰 아이가 자주 보채고 울었는데 울을 끝이 길어 내 잠을 방해하기 일수였다. 추운 겨울에 온돌방 바닥은 뜨겁고 뒀 공기는 차서 감기가 떠나지를 않고 요새처럼 우유를 먹이지 않고 밥물을 적당히 먹이던 때라 자주 설사를 했는데 제 몸이 불편해서 우는 것을 나는 짜증을 내곤 했다.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꼴이라 나는 큰 아이 버릇을 고칠 셈으로 한번은 밤중에 몹시 우는 아이에게 매질을 했다. 그럴수록 큰 아이는 더 울어제끼고 나는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 계속 매질을 했다. 다치게 때린 것은 아니지만 두 살도 안된 아이를 매를 댔으니 미국에서 같으면 child abuse로 잡혀 갔을 것이다.

나는 큰 아이의 성격이 그 때 내가 때를 댔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해서 혼자 속으로 후회도 많이 하고 자책으로 속도 끓였다.

둘째 아이는 금년에 사십인데 미혼이다.

내 세대와 달라서 사십에 미혼자라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부모 마음은 다르다. 주위에서 여자를 소개하면 마다 않고 만나기는 하는데 번번히 성사가 되지 않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전기 스카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할 수 없는 일 이기는 한데 건강하고 게이도 아닌데 전기가 안 일어난다는 자체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전문의의를 취득하고도

fellowship를 몇 해 더 했고 사진기 등 전기 전자 기구 등에 관해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물어보면 만물박사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네 아이 중에 둘째만 식사기도를 꼬박 고박하며 시간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내 서툰 정신분석으로는 둘째는 정서 발전이 지능발전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을 할 뿐이다.

둘째가 한참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는 환자 때문에 피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놀아주고 애비로서 상당도 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정서적 발전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내 탓을 한다.

제 나이 또래 의사 친구들은 벌써 번쩍거리는 차에 큰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낳아서 학부형 노릇을 하는데 그 아이는 다 낡은 작은 혼다를 몰고 콤퓨터 앞에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부모로서 속이 상한다.

나는 수년전 둘째에게 자랄 때에 내가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긴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다.

한편으로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다 부모의 탓은 아니다 라고 변명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 증거로 다 같은 부모 밑에 자랐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성격이나 이성교제나 사회활동 모두가 이상이 없는 것을 보면 부모의 탓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변명일 뿐이고 자식이 잘못되면 우선 부모는 자기 탓인 것 처럼 죄의식에 빠진다.

극악무도한 살인 강간범들의 부모들이 그 자식을 안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나는 돌을 던질 수가 없다.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자식을 쥐어박는 대신에 죄를 부모가 뒤집어 쓰고 싶은 심정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의견도 가능하다.

자식이 내 유전인자를 받았지만 나도 내 부모로부터 받아 넘겨 준 것뿐이고 나와 부자간의 인연이 된 것도 내 의사로 된 것이 아니라 신 혹은 운명의 소관인자라 그 중에 얼마만큼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나쁜 친구의 영향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밖에 부모 탓이 아닌 수많은 원인이 인격 형성에 작용할 수 있는데 왜 부모가 죄의식에 시달려야 하느냐 하고 항의할 수도 있다.

부모보다 자식이 낫다고 하면 부모는 좋아하고 반대로 부모가 더 낫다면

자식은 서운해 한다. 그만큼 부모의 자식 사랑은 대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양도 덕은孝를 강조해서 가르쳤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자식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주는 것이 옳은지, 못본체 감나무 밑에서 흥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기다리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내가 그 나이에 그랬듯이 아이들 생각에는 다 컸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지 모르는데 내 말은 잔소리로 치부하고 말것 같아 쉽게 입이 열리지 않는다.

한편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왜 그 때 내게 충고를 더 해주지 안했는지 하며 나를 뒤늦게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말을 하고 싶은 충동도 느낀다.

세속적인 욕심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눈을 감기전에 자기 자식들이 짝을 얻고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나이를 더하니 언제 무슨 병고가 생길지, 아니 언제 자식들만 세상에 남겨놓고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으니 자식중에도 모자란 자식이 목에 가시 걸리듯 걸리는 것이 노파심 때문만은 아니다.

부자간의 인연은 나의 업이니 내가 풀어야 할 숙명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내게 내린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감상히 받을 수도 있다.

자기가 기르는 양이 모두 소중하지만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크듯이 부모의 마음은 모자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나 바람도 불고 비도 와야 사는 맛도 알고 행복도 맛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 위로한다.

내 탓

임낙중(59)

여름날의 이야기

천 양 곡(69)

일전에 선배 부부님으로부터 음악회 표가 있으니 같이 가자는 연락이 왔다. 그렇지 않아도 음악회에 가본지가 오래된지라 염치 불구하고 Yes 했다.

매년 8월 초순이 되면 시카고 지역 자랑거리의 하나인 Ravinia 야의 음악당에서 여름 축제를 위한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금년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밀워키 합창단이 베토벤 심포니 9번 교향곡 '합창'을 공연한다.

집에서 오후 4시 반에 떠나 가는 길에 이른 저녁을 들고 Ravinia로 떠났다. 속옷에 땀이 배며 후덕지근 했던 시카고 지역의 여름 날씨가 지구의 온난화 때문인지 별로 습기가 없고 낫은 뜨겁지만 저녁엔 제법 선선해졌다. 좋은 프로그램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리라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혼잡할 줄은 몰랐다. 길에서 4시간 이상 헤매다가 Ravinia 입구에 도착하니 8시가 조금 넘었다. 우리 일행의 티켓이 실내 음악당(Pavillion)의 Box Seat이다. 안내원의 도움으로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좌석에 앉으니 8시 27분, 한 시간의 음악 순서는 놓쳤지만, 만약 5분만 늦었더라도 Main Event인 합창 교향곡을 들을 수 없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다. 지휘자 Christoph Eschenbach에 맞춰 퍼져 나가는 1악장의 빠른 음률은 피로와 긴장이 겹친 나의 심신을 점점 녹여주었다.

베토벤은 1970년 독일의 본에서 테너 가수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독려로 어렸을 때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하여 재능을 인정 받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유학을 갔다. 당시 비엔나는 유럽에서 내노라 하는 문학자, 미술가, 음악가들이 모여있는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선망의 도시였다. 그러나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에 고향인 본으로 돌아왔다. 몇 년 뒤, 다시 비엔나로 와서 영감을 지닌 환상적이고 율동적인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날리자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밤 걱정은 안 하게 됐다. 경제적 어려움이 덜어진 베토벤은 본격적으로 피아노 작곡과 교향곡 작곡에 전념했고 한 때 피아노 제작에도 관심을 가져 현대 연주용 대형 피아노(Grand Piano)의 등장에 한 일익을 담당했다.

음악은 이제 들관외 새들이 지저귀듯 빨라지면서 1악장이 끝나가고 있었다. 2악장은 마치 연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듯 아주 경쾌하고 활발한 음률이다. 2악장 중간쯤엔 연인들이 데이트 도중 소곤대는 소리처럼 간지럽게 들린다.

베토벤은 1801년 1번 교향곡부터 1824년 9번은 마칠 때까지 생전에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다. 특히 9번 교향곡 합창은 베토벤이 젊었을 때 즐겨 암송하던 서사시 'Ode to Joy'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곡이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일까 삼십도 안 된 나이에 음악가에게 너무나 가혹한 청각장애가 베토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작곡가로서의 명성은 날로 유명해졌지만 청력은 점점 나빠만져서 30대 초반에 이미 청력 회복 불가능이란 진단을 받게 된다. 그는 공중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고, 동료들과도 멀리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격리시키는 우울증세가 나타난 시기였다. 의사의 권고로 비엔나 주위의 한 시골에서 요양하며 형제들에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행하고 참혹한지 그리고 곧 죽음이 있을거란 유언 비슷한 편지를 썼다. 그러나 베토벤은 편지를 부치지 않았으며 절망에서 벗어나 강

한 의지와 새로운 창조력으로 작곡에 몰두하게 된다. 이 때 완성한 제 5교향곡은 "운명은 문을 두드리고 있다"란 주제가 담긴 곡으로 웅장한 음향을 사용하여 암흑에서 광명을 찾아 가혹한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혹자는 베토벤이 조울증 환자로 우울증(Depression)에서 조증(Mania)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고도 한다.

나는 고등학생 때 베토벤을 좋아했다. 그의 음악이 아니라 그의 일생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이다. 대학에 떨어지고 공부한답시고 절에 있으면서 그의 음악에도 빠져버렸다. 그의 운명 교향곡을 매일 들었다. 미치도록 들었다. 헤어 스타일도 베토벤처럼 하고 다녔다. 대학 예과 일학년 땀 책가방은 뒷전에 두고 Pops Orchestra를 친구들과 같이 조직하여 서울과 지방 도시들로 돌아다녔다. 베토벤은 내 젊은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의 한 페이지를 안겨 주었던 사람이다. 지금 막 2악장이 끝났다. 3악장이 되면 음악은 깊은 숲 속의 개울에서 졸졸졸 흘러가는 물소리 마냥 잔잔하고 평화스런 음률로 변한다. 슬픔과 고통을 이겨낸 순간, 삶과 죽음을 초월한 마음가짐을 표현한 음악인지도 모른다. 베토벤은 사다롭고 이상한 사람이었다. 기존의 사회의식에 개의치 않고 웃도 자기 마음 닿는 대로 입고 다녀 어떤 때는 광대(crown) 같이 보였다고 한다. 가족들과 사이 좋게 지내지 못했고, 여자 관계 또한 순탄치 않아 여러 여성들에게 구혼해 보았지만 거절 당해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19세기 초중반에 사라져가는 청각을 붙잡아 보려고 여기저기 여행을 했다. 한 번 이루고 싶었던 괴테와의 만남이 1811년에 있었다. 두 거장이 만나 무슨 얘기를 주고 받았을까 궁금하다. 후에 괴테는 만나 본 예술가 중 가장 영감이 풍부하고 박력에 넘친 사람이라고 베토벤을 평했다.

고요하던 음악이 4악장에 들어서면서 달리는 말발굽 소리모양 급속곡으로 이어진다. 노여움을 외치는걸까? 기쁨의 환호성일까? 둘이 합쳐진 것일까? 베토벤이 40대 중반이 되자 완전히 귀가 멀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몇 몇 가까운 친구와 방문객이 찾아오면 준비해 둔 노트북에 글을 주고 받으며 의사소통을 했다. 음악은 지금 관현악 연주가 막을 내리며 굼직한 남성 바리톤의 "친구여! 이런 음성이 아닌 보다 즐겁고 유쾌한 소리로 우리의 목청을 높여 봅시다"로 교향곡의 합창 파트가 시작된다. 18세기 말 독일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시인 Schiller의 'Ode to Joy'는 청년이었던 베토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다. 그때부터 베토벤은 언젠가는 시의 테마를 음속에 새겨보리라 마음먹었던 것이다. 바리톤에 이어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 알토 네 사람의 솔로리스트와 밀워키 합창단의 기쁨에 찬 노래 소리가 번갈아 가며 야외 음악당으로 힘차게 퍼져 나갔다.

기쁨은 신들의 아름다운 불꽃, 낙원의 신 엘리스움의 딸, 불같이 타오르는 황홀함에 취한 여신이며! 우리는 당신의 성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엄한 불에 박힌 관습에서 벗어난 우리들, 당신의 마력으로 당신의 운후한 날개 밑에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소서 교향곡 제 8번을 끝낸 후, 귀도 안

들리고 병도 들었지만 서사시에 나오는 기쁨(joy)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음정 하나하나마다 피나는 노력으로 합창 교향곡을 완성한 것이다. 합창은 계속된다.

진실한 친구를 얻은 행운아여!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여!
환희의 축제에 어서 나오시오,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여!
자연의 첫 무덤으로부터 기쁨을 끌어내어
선인이나 악마나,
다 함께 장미꽃으로 덮인 오솔길을 좇아갑시다.

베토벤이 수 백 번 썼다 지웠다 고쳐가며 노래를 만든 과정을 기록한 흔적도 있으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9번 교향곡을 음과 언어가 섞인 신비에 가까운 음악으로 즐겨 듣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우리 불에 키스하며 포도주를 주고, 신분이 낮은 자에게도 생을 위한 정육을 심어줍니다. 천상의 영광스런 질서를 통해 태양이 질주할 때, 형제들이여! 기쁨에 겨워 춤을 추어라. 승리를 맛본 기사처럼 의기양양하게 날뛰어라.

프로젝(항우울제)이 처음 나왔을 때 제약회사와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이란 이름이 머지 않아 정신과 사전에서 사라질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우울증은 계속 사람들의 심신을 괴롭히고 있다. 베토벤이 심한 우울증을 앓았을 당시에는 항우울제도 없었지만 그는 털고 일어났다. Schiller의 'Ode to Joy'에 대한 동경, 곡을 만들어 내겠다는 집념이 더 좋은 항우울제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노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여 너희는 창조자를 몸으로 느껴보느냐? 별들의 저편에 계신 그 분을 찾으라.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찾으라. 기쁨은 신들의 아름다운 불꽃, 낙원의 신, 엘리스움의 딸, 불같이 타오르는 황홀함에 취한 여신이며 우리는 당신의 성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 젊은 나이에 천벌에 가까운 귀머거리 병에 걸렸지만 좌절치 않고 이런 기쁨의 노래를 선사한 베토벤에게 머리를 숙인다.

동문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신 영철(59)

"문학은 삶의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
- 장영희

"여보, 당신도 우리 여학교 때 영어선생 장왕록 선생님 알죠?" 아내가 아담한 책 한 권을 보여 주며 한 말이다. 풀이켜 보면 열 겹처럼 오래 전 옛 이야기다. 예과 때 교양과목으로 영문학을 가르치신 장왕록 선생은 미남의 청년 교수였으며, 강단에서는 조금 수줍어 하시는데 했다. 나는 교수라기 보다 형님같이 느끼곤 했다. 세월은 흘러, 그 분의 파님 장영희 교수가 수필집 '문학의 숲을 거닐다'를 펴낸 것이다. 초판 인쇄 2005년 3월 15일, 쌤터사(김성구),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15, 326쪽이지만 책의 크기가 작고, 글씨가 크고, 한글 문장이 유려해서 읽기 쉽다. 오자 하나도 눈에 안 띈다.

이 책에서 그는 미국 작가 30명의 작품 32 편과 영국 작가 16명의 작품 20편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작가와 작품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몇몇 작가와 작품도 소개한다. 그밖에도 15명의 미국 작가와 8명의 영국 작가를 비롯해서 동서고금의 많은 위대한 작가들에 관해 언급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교과서나 참고서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어디까지나 그의 일상생활의 신변에서 그가 보고 느낀 것들이 토대가 되어 있어 포근한 친근감이 앞선다.

장교수가 이 수필집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는 사랑이 어느 논리보다도 앞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러는 웃기도 못 재미있는 것도 있고, 더러는 교훈적인 것도 있으나, 이 책의 모든 수필이 독자에게 주는 것은 놀라운 감동이다. 특히 마지막 수필 '문학의 힘'을 읽고, 나는 이 일흔 한살의 늙은이는, 물고 말았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다.

아버님

인정길(70)

젊은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
아버님 그리운 이 내 가슴 어이할까.

생전의 당신이 내 심신에 되사시어
한잔술에 너털 웃음이 눈물 같은데
밤을 빌어 못다한 대화가 못내 서러움구나
거스를수 없는 불효가 떨어진 가람일처럼
쫄벌레 소리 울음같이 가슴 애이는데
우러러 보는 밥하늘에 밝는 당신 눈빛이
정녕 너무나 먼 저 맑은 별이려니-

영정속의 당신이 말씀없이 내 눈 속에 잠기어
그 따스하신 마음을 갚을 길 없고
쓰다듬어 애뜻한 당신의 깊은 애정이
달빛 총만한 바다와 같은 호수처럼 -
기억을 되돌아 보아 정다운 사진들이
저 세상을 모르는듯 환한 웃음 변함없는데
어이타 세월 흘러 당신이 이리 그리울까

젖은 내 눈이 년륜을 거슬러 유치하다 하여도
영영 아빠 찾는 아해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惡(Evil)의 계단

허 선 행(64)

아주 잔인한 범죄의 종류를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500여명과 인터뷰를 했다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범죄의 대부분은 일종의 죄악을 범하는데서 오지만 '악'이라는 극단적인 도장이 찍힌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잔인한 살인자들은 단순한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희생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이 만든 어느 공간에 가두워 놓고 살점을 찢던지, 불로 지지거나 성적 희롱을 하면서 이를 즐기든지, 추제같은 것을 한 후에 살인을 하는데 이들의 잔인함이 계획적이고 습관적이며 이를 또한 즐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간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지도 오래 되었건만 아직도 매일 살생되는 미국의 젊은 병사들과 선량한 이라크민을 보면서 이 잔인한 살인에는 또한 그 배경이 좀 다르겠지만 역사적, 애국적, 종교적 가면을 쓴 '악'의 소생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이런 잔인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왜 생기느냐에는 그 주장이 시대적,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 따라 변화해 왔다.

종교학자나 지도자들, 예를 들어 St. Augustine(AD 354~430)은 말하길 "악은 아담과 이브에 의해 시작됐고 단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St. Thomas Aquinas(1215~1274)는 "악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지'의 남용"에서 왔다고 주장했으며, Jean Jacques Rousseau(1712~1788)은 "악은 인간의 본성이나 신의 뜻이 아니고 사회의 부패, 억압에서 온다"고 말했으며, Sigmund Freud(1856~1939) 같은 심리학자는 "악"이란 용어를 거의 안했으며 대신 잔인한 행동은 해결 안된 정신세계의 충돌이나 불협화음에서 온다고 말했다.

인간생활에서 어디까지가 '악'이고 나머지는 '선'에 속하는지, 또는 선도 악도 아닌 그 중간도 있는데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고 인류역사가 있어온 지

금껏 이 '악' 또는 악마가 저지르는 행위의 복합적인 근본원인 설명은 안되었기에 '성선설, 성악설' 같은 동양 석학들의 가설도 나왔던 것으로 본다.

인류 역사상 전쟁과 대량살상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 이 대량살상의 '악'은 지금껏 보아온 '악행'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줄 알면서도 이를 저질렀던 군주, 황제, 왕, 국가원수, 대통령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짧은 기억으로도 세계 2차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일반시민들이 사라졌으며, 스탈린의 대량학살(3천6백만),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Holocaust), 일본의 고령, 조선 침략, 약탈 살생 그리고 6.25의 비극외에도 5개 대륙에서 저질러진 '악'의 행진은 끝나지 않고 우리는 현대판 살상인 테러리스트의 자살 폭발의 위협속에 살며 매일 들려오는 폭탄세례와 사망의 뉴스를 접하게 됐다.

이러한 전범은 제쳐놓고 최근 콜롬비아 대학원은 일반인의 '악행'을 22단계로 나누어 보는 시도를 했고, 뉴욕대학에서는 이 잔인한 범죄자들의 행위를 종합해서 그에 대한 악행치수를 만들어 왔다. 이제 빈 라덴이나 전범들의 악행단계나 그 치수는 누구도 추종을 불허할 '악'의 극한점에 와있다고 본다.

은퇴생활

이 흥 표(64)

어느덧 은퇴한 지도 벌써 일년이 지났다.

나는 미국에 와서 6년 동안을 디트로이트에서 Intern, Resident, Cardiology fellowship을 보내는 중 SCPM(S. Cal. Permanente Medical Group)의 Medical Director를 만나는 기회로 LA Kaiser SCPMG에서 인터뷰를 하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이곳으로 왔다. 디트로이트를 떠날 때 몇년 같이 있던 수십명 동문들이 고향(?)같은 디트로이트를 버리고 지진 많은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때 내가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된다.

몇년 후 smog도 적고 경관이 좋은 Palos Verdes가 마음에 들어 근처에 있는 South Bay Kaiser Center 로 이전하

여 종합 32년을 Kaiser SCPMG에서 지나다가 65세가 되어 파트너쉽에서 은퇴하게 되었다. SCPMG에서는 58세부터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어 여러번 생각했었는데 자식들도 안되는 젊은 의사들과 뛰어나기에는 점점 힘이 부족한 응급병원근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65세까지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처음 Kaiser에 올때는 로스앤젤스에 오는 발판으로 쓸까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내고 보니 Business Malpractice 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정직하게 의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 32년을 SCPMG Partner-Physician 로 보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개업보다 못했겠지만 그런대로 살만했고 Pension Plan, Vacation, Medical Sabbatical time이 좋은 장점이 있고 남은 시간동안 pacemaker 수술기구를 몇가지 도안할수도 있어서 나에게는 후회되진 않는 직장이었다.

은퇴장소로는 재미한국인에게서는 로스앤젤스 만큼 ideal한 장소는 없는 것 같다. 온화한 기후,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주는 국제공항, 큰 병원,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회 등의 이점, 그리고 수많은 한국식당들은 우리의 식생활을 즐겁게 하고 그동안 생활에 분주했던 처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이곳에 있는 동문들은 은퇴 후 따뜻한 곳을 찾아 철새처럼 피곤하게 다녀야 하는 북부의 동문에 비하면 많은 복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본론으로 들어가 나의 은퇴 후 생활은 골프, 여행, 컴퓨터, Physical Fitness, 손자, 로컬 메디칼 컨퍼런스, Invention Business, Astronomy, 한국드라마, 영화, 뮤지컬의 순서라 하겠다. 오히려 더 바빠서 내가 좋아하던 바둑(1급 실력)을 아직도 한가히 두어볼 시간을 갖지 못했다. 나는 별로 운동신경은 없지만 연습 덕택으로 골프 핸디캡이 14 정도로 줄었고 팀 플레이도 하면서 일주에 두세번은 골프를 즐긴다. 집 근처에 있는 Rolling Hills C.C. 에서 주로 지내지만 친구들과 다른 곳 골프 여행도 종종 한다. 와이프도 나와 비슷한 실력이라 다른 커플들과 저녁내기 시합을 하기도 한다.

여행은 2~3개월에 한번씩 국내외 여행을 하는데 은퇴 후에는 스케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요즘은 공항 출입이 점점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로컬 여행에 더 호감이 가지만 노년이면수록 힘든 먼 해외여행을 2~3년 내로 우선하고 다음은 국내 로컬 여행으로

바꿀 계획이다. 컴퓨터는 알수록 편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E-mail, photo management, I-pod music, finance 하면 할수록 재미가 많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배울 것이 한이 없는 것 같다.

일주일에 하루는 손녀들과 지내는데 손주 손녀가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재미도 있고 힘도 든다. 한번은 집으로 오고 한번은 딸이 사는 Pasadens로 찾아 가는데 손녀들과 노는 것은 즐겁지만 손녀들이 갈 때가 섭섭 후련하기도 하다.

건강관리를 위해 로컬 피트니스 센터에 2~3일에 한번씩 가는데 가끔 골프장에서 걷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2~3번은 Harbor General UCLA와 South Bay Kaiser Medical Ctr. 에 가서 CME lunch conference에 참가하여 희미해지는 의학지식도 업데이트 시키고 옛친구들과 식사도 하며 친목을 유지한다.

나는 천문학에 취미가 있어 지난 4월에는 남태평양 고도인 Easter Island 근처에서 total solar eclipse를 보았는데 우리가 국민학교때 한국에서 보던 생각이 났다. Solor eclipses는 3주 남태평양을 cruise를 하면서 관광하였는데 여행 중 많은 천문학자들의 강연이 더 흥미로웠다.

작년에 집 courtyard를 리모델 하려 퍼팅 그린과 fountain 옆에 sitting area 를 만들어서 혼자 조용히 지내기도 좋지만 가끔 친구들과 피자를 먹으면서 시합도 하고 재미있는 DVD를 즐기는 여유도 다 은퇴의 덕이라 하겠다.

퇴직후 처와 항상 같이 있게되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중에는 서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같이 있는 시간이 퇴직 전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이제는 나도 혼자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이것저것 하고 책을 보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기다려 지기도 한다. 60세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옛날처럼 젊지만 몸은 이곳저곳 서서히 달라지니 앞으로 엔조이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동문들은 지난 몇십년을 의대, 연수, 개업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많은 pressure 속에서 지냈으니 그 대가로 다 건강할 때 은퇴하여 천천히 쉽게 살면서 취미생활을 엔조이하고 남은 인생을 즐기시기를 본인은 재삼 바라고 있다.

농담골목

매일같이 술을 지독히 마시는 아들에게 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그를 보고 밥상 앞에 앉으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위에 유리 글라스 두 개를 놓고, 아들에게 하나에는 물을 담고 하나에는 위스키를 담으라 했습니다. 그런 후 벌레 두 마리를 주면서, 글라스 속에 한 마리씩 넣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스키 속에 넣은 벌레는 곧 죽는데, 물속에 있는 벌레는 살아서 계속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기를 "이것을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대답하기를 "위스키가 병원균을 다 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면)

약방에 찾아온 여자 손님이 청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약사가 "그것은 독약인데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라고 하니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약사가 "왜요?"라고 물으니, "그이가 바람이 났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약사가 "어디 확실한 증거라도 있는지요?"라고 하니, 여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이면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약사가 그 사진을 보니 남자가 열렬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자세히 드러다 보니, 그 입맞추는 여인이 바로 자기 처였습니다. 약사가 "이제 처방을 보았으니 청산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리)

편도선 수술을 마친 섹시한 아가씨가 회복실에서 깨어난 다음 마취의사에 게 "선생님, 언제부터 정상적인 섹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덕승)

시장이니 마누라와 다운타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새로 집을 짓는 공사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마누라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자 한사람을 보더니 한참이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에게 돌아 왔다. 기다리다 지친 시장이 화가 나서 "저 친구는 누구야" 하고 물어 보았다. 마누라 말이 "저 사람은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꽤 친한 사이어서 한때는 결혼 생각 한적도 있었어요" 이말에 남편이 "당신은 날 만나서 행복하지. 저 사람 한테 시집 갔으면 지금쯤은 하루살이 노무자 마누라야." 마누라가 하는 소리가 "무슨 말씀이시지. 내가 저사람 한테 시집 갔으면 저 사람이 시집이야." 라고 하였다. (김승업)

수많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부(富)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명성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여간 위대한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옛날 한 승려가 세속적인 번뇌의 두가지를 원천에 관해서 그의 제자에게 일러주었다.

"금전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은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숨어 사는 학자나 승려마저도 그들끼리 좁은 세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이름을 날리려고 애쓴다. 많은 청중이 있는 공식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싶지, 너와 나 단 두 사람만이 있는 조그마한 절간에 숨어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가 대답했다. "스님 정말 그렇습니다. 스님이야말로 명성에 대한 욕심을 뿌리치신 유일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김용재)

오우버 센스(Over Sense)
옛날, 어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얘기다.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고 다음은 예물 교환 순서가 되었다. 신부는 신랑에게 시계를 예물로 전달했다. 다음은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전달할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주례가 탁자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신랑에게 반지가 안보인다고 눈치로 싸인을 보냈지만 약간 모자라는 신랑이 제대로 알아차릴 턱이 없다. 당황한 건 주례다. 신랑에게 반지를 어디 두었느냐고 큰소리로 물을 수도 없어서 말을 못하고, 우측 손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좌측 손가락에 끼우는 시늉을 계속 반복하면서 반지 가져오라고 다급하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천하태평인 신랑은 히죽이 웃으면서 주례에게 속삭이듯 얘기한다는 것이 그만 마이크로 전달되어 하객들도 다 듣고 말았다.

"에이! 주례선생님! 아 그건 밤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례선생 땀났다! 땀나!! - (허선행)



2006년 Summer Convention 안내

장소: Taj Mahal, Atlantic City, New Jersey

일시: 2006년 6월 25일(일) ~ 6월 29일 (목)

서울의대 미주동창회(SNUCMAA)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Summer Convention Scientific Seminar가 오는 2006년 6월 25일(일)부터 6월 29일(목)까지 뉴저지의

Atlantic City에 있는 Taj Mahal Casino Resort에서 열립니다.

지난 여러해 동안 동창회 활동 중 가장 큰 행사로 자라온 Summer Convention은 초기의 golf outing 위주에서 scientific convention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동문 가족들을 위한 spouse program도 합촌회에서 주관하여 교양강좌 등이 함께 진행되어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여 배우고 즐기는 모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Taj Mahal은 Donald Trump가 1990년 4월 2일에 개장한 카지노 호텔입니다. 1 billion 달러를 들여 전에 볼수 없던 특별건축의 대표작을 목표로 하여 호화스러운 카펫, 샹들리에, 대리석 등을 써서 원래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궁전을 본떠 지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입니다. 4.2 million square feet 대지에 17 acre의 boardwalk 을 가진 장소입니다.

Convention 장소를 Atlantic City, NJ로 정한뒤 최준희 회장, 서인석 총무와 함께 World Travel(세계여행사 - 대표 리디아 정)에서 추천한 후보지 중에서 site visit을 한 뒤 Taj Mahal Hotel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은 최대호화 Casino인 Borgata에 비하여 아직도 견줄만한 건물이며 Taj Mahal Hotel의 모든 room이 해안을 향해 있고 또 boardwalk에 접해 있어서 경치와 편리한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Atlantic City의 peak season인 여름철 주말에는 저희 동창회 정도의 작은 단체의 convention은 많은 호텔에서 받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관계만해도 주말 room rate가 \$200/day가 넘는 관계로, 날짜를 일요일에 check-in, 목요일에 check-out하는 주중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Taj Mahal 에서 room rate는 \$115/day로 정해졌습니다. (단 1 bedroom suite는 \$275, 1 bed room hospitality suite는 \$350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Borgata는 주중 room rate가 \$155입니다.

오전의 scientific meeting and spouse program이 끝나면 오후에는 예년과 같이 golf outing이 있었습니다. Atlantic City 주변에는 golf digest 4 star 이상급의 많은

golf course가 있습니다.

지난 여러해 동안의 경험과 golf 잡지의 자료를 모아서 몇 course를 뽑은 후 직접 방문하여 play 해본 후 다음의 course를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6월 26일(월)과 6월 28일(수)에는 아틀란틱 시티에서 10-12마일 떨어진 Egg Harbor에 있는 Harbor Pines에서, 6월 27일(화)에는 유명한 Blue Heron Pines, West course에서 shot-gun으로 거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Blue Heron Pines는 east와 west course가 있습니다만 새로 지은 east course가 내년에는 real estate로 변하기 때문에 정할 수 없었습니다.

Harbor Pines Golf Club은 Stephen Kay Design, 1996년에 개장하였고 Blue Heron West는 classic course로 유명하며 Stephen Kay Design 1993년에 오픈하였습니다. Harbor Pines도 몇년전보다 훨씬 성숙된 좋은 course 입니다.

Scientific session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경험이 풍부한 최영자(66)동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 주중인 관계로 speaker선택에 조금 고충이 있는듯 하지만 풍부한 과거 경험으로 2006년에도 좋은 Seminar Program이 기대됩니다.

Spouse Program은 합촌회 회장인 Mrs. 최준희께서 많은 idea를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Program은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예년과 같이 dinner dance, class reunion, talent show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ummer Convention은 scientific session이 주축이 되지만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동문들과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Annual Charity Ball과 함께 fund rising에도 의미가 있는 모임입니다.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시어 비용도 서로 분담해 주시면 모든 목적을 다 달하는 성공적인 모임이 될수 있겠습니다. 준비위원들이 동문서주하여 의미있고 보람된 모임이 되도록 약속드리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tlantic City, NJ에는 boardwalk, casino, golf 외에도 많은 show, shopping 등의 다른 action이 많은 곳이기때문에 많은 가족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계획하셔서 많은 동문이 전가족이 함께 모임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여름, Atlantic City, NJ 에서 반갑게 만납니다.

- Convention Chair 권 정 덕(64)

합촌회 소식

* 10월 합촌회 모임이 10월 12일 정오 12시(둘째 수요일) 팰리세디움 대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여성강좌는 Social Security Benefit에 관해서 김풍미씨(Social Security Office에서 18년 근무)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9월 14일에 있었던 합촌회 모임에서는 John Baek, CFP 로부터 Retirement Fund를 9 or 10% Yield로 만들 수 있는 Fund 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석하신분들은 Dr. & Mrs. 이규용, 최준희, Mrs. 박희명, 심인보, 엄규동, 정인용, 조성준, 한기현, 이재진, 이재승, 오용호, 김중권, 방석운 등 모두 15분이었습니다.

* 지난번 모임에서 의논하여 허리케인 Katrina disaster, 뉴올리언스를 위해 \$1,000을 적십자사에 도네이션 하였습니다.

공지사항:

2005년 Annual Ball

11월 19일(토) 오후 6시 30분, 팰리세디움 대원, 뉴저지
지금쯤 Annual Ball Invitation Card를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125/인당으로 10월중에 레저베이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6년 Summer Convention

6월 25일(일)부터 6월 29일(목), Taj Mahal Hotel, Atlantic City, NJ
Dr. 양찬기(63)씨의 재치있는 사회로 Grand Banquet이 있을 것이며 Night Club Show도 관람 하시겠습니다.
미리 Schedule을 계획하시고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의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게재 사양하는 원고: (1) 영문으로 쓴 원고,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3) 종교적인 내용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l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42-04 Bayside Avenue, 10U A, Flushing, New York 11354

e-mail: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